



‘베이징이 보인다’

대타 이승엽 2점포 등 16안타 폭발 스페인 14-5 대파...파죽의 4연승

■ 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한국 야구대표팀이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전에서 14-5로 유럽 대표 스페인을 대파하고 파죽의 4연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10일 대만 원린현 도우리우구장에서 벌어진 2008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4차전서 대타로 나선 이승엽의 홈런을 포함해 16안타를 몰아치며 14점을 뽑아냈다.

한국은 앞으로 남은 독일, 캐나다, 대만과의 3연전에서 2승을 추가하면 본선 출전을 확정짓게 되고, 1승만 올려도 티켓 획득이 유력해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8년 만에 올림픽 출전을 가시화시켰다.

전날 멕시코와의 야간 경기에서 6-1로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이날 약체 스페인을 상대로 주포인 이승엽과 박진만, 진갑용(이상 삼성), 이진영(SK)등 주전들을 빼고 김주찬(롯데), 손시현(상무), 조인성(LG), 이종욱(두산)을 대신 기용했다.

선발 김선우(두산)가 마운드를 지키는 가운데 한국은 1회초 2사에서 몸에 맞은 공으로 출루한 뒤 포수 패스트볼로 2루까지 진투한 고영민(두산)이 이대호(롯데)의 중전안타 때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올렸다. 첫 득점을 기록한 고영민은 3회에는 적

시타로 3루에 있던 이용규를 불러들이며 타점을 올렸다. 4회에는 상대의 실책과 볼넷 2개, 3안타 등으로 대거 5점을 뽑으면서 7-0으로 앞서나가며 승기를 잡았다. 5회초에도 손시현의 적시타로 8점차까지 도망갔던 한국은 5회말 선발 김선우가 갑자기 흔들리며 추격을 허용했다. 4회까지 2안타를 허용하며 호투를 보이던 김선우는 5회에만 5안타와 볼넷 1개를 허용하며 4실점 했다.

이어 한국은 6회초 볼넷으로 나간 이종욱이 2루를 홈런 뒤 고영민이 좌전안타로 타점을 추가하고, 김주찬이 좌중간 2루타를 치면서 10-4로 달아났다.

스페인인 6회말 두 번째 투수 우규민(LG)으로부터 3안타를 뽑아 1점을 만회했지만 한국은 7회초 고영민의 적시타로 11-4로 앞서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8회에는 이승엽이 대타로 나서 8일 호주전에서의 스리런에 이어 두 번째 홈런포를 가동하며 2점을 보탤다.

경기 초반 1루 코치로 나서며 여유를 보였던 이승엽은 8회 1사 1루에서 정성훈(우리) 대신 타석에 나서 스페인의 5번째 투수 호르헤 발보아로부터 우측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기록했다. 한국은 11일 하루 선 뒤 12일 낮 1시30분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독일과 5차전을 치른다.



9일 영국 버밍엄 국립실내경기장에서 벌어진 전영오픈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남녀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복식의 정재성과 이용대(사진 왼쪽)조, 여자복식의 이경원과 이효정조가 우승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 남매 복식 우승 대회 18년만에 쾌거

전영오픈배드민턴 슈퍼시리즈

오랜 침체가에 빠졌던 한국 셔틀콕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영오픈에서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김중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 국립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08전영오픈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을 동시에 석권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한국이 전영오픈 남녀복식을 휩쓴 것은 1990년 박주봉-김문수, 정병희-황혜영 조 이후 무려 18년만이다.

특히 여자복식 결승에 나선 이경원-이효정(세계랭킹 4위·이상 삼성전기) 조는 세계 최강인 중국의 만리장성을 3차례나 타고넘고 정상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8강에서 세계랭킹 7위인 중국의 가오링-자오팅팅 조를 2-0(21-16 21-19)으로 격파

했던 이-이 조는 4강에서는 세계랭킹 3위인 양웨이-장지웬 조에 2-1(13-21 21-13 21-19)로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이날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두장-유양 조마저 2-1(12-21 21-18 21-14)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복식이 전영오픈에서 우승한 것은 1999년 라경민-정재희 이후 9년만이다.

‘형제 대결’이 펼쳐진 남자복식 결승에서는 정재성-이용대(세계랭킹 6위·이상 삼성전기)조가 이재진(세계랭킹 11위·밀양시청)-황지민(강남구청) 조를 2-1(20-22 21-19 21-18)로 제압, 지난 주 독일오픈 결승에서 패배를 설욕하고 우승했다.

남자복식이 1.2위를 차지한 것은 2000년 이후 8년만이다.

베이징올림픽을 5개월여 앞두고 화려하게 부활한 한국 대표팀은 11일 스위스 바젤로 이동해 스위스오픈 슈퍼시리즈에 출전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강진군 병영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 1회 전남 남부 사회인야구리그 강진군청팀과 보성 하나나미팀의 경기에서 강진군청 3번타자 이동훈이 1회 무사 2, 3루 때 타격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보성 하나나미팀이 17-8로 승리했다.

전남 남부 사회인 리그 ‘플레이 볼’

“보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직접 공을 때려 담장을 넘기고 싶다.”

강진, 해남, 보성지역 사회인 야구팀으로 구성된 제 1회 전남 남부 사회인 야구리그가 탄생했다.

올해 첫 대회를 맞이한 전남 남부 사회인 야구리그는 지난 9일 강진군 병영정보과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강진 해오름 팀과 강진 압피니스 팀의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7개월간의 험난 레이스에 들어갔다.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보자는 뜻을 모아 개막된 이번 남부리그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순수 아마추어 팀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남 남부 3개(강진, 해남, 보성)군 10개 팀, 12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오는 9월까지 2개조로 나눠 일주일에 한 경기씩 모두 65경기가 열리고, 구장은 강진(병영정보과학고등학교), 보성(회천중학교), 해남(송지중학교) 등 3곳을 이용

한다.
운영도 남부리그 회장은 “평소 영암, 목포 등에서 열리는 사회인 야구대회를 참가하던 중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에 따라 제 1회 대회를 열게 됐다”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단 또는 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최저 '특별리 회원권'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경기장 및 모어레스토랑으로 확장사업 하였습니다.
승수에 일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베소가 되었습니다.
문의 (062)351-0095

“대승 했지만 매끄럽게 끝내지 못해 아쉬움”

김경문 감독 스페인전 소감

야구대표팀 김경문 감독이 “대승은 했지만 매끄럽게 끝내지 못했다”며 아쉬움 감정을 나타냈다.

김 감독은 10일 대만 원린현 도우리우구장에서 끝난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 4차전서 스페인을 14-5로 대파한 뒤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점수는 많이 났지만 경기를 매끄럽게 끝내지 못했다. 이런 점이 다음 게임에서 반복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잘 쉬고 12일 독일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친 병간호를 위해 급거 귀국한 김동주에 대해 “중심 타자 김동주가 빠져 감

독으로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김동주 개인으로서는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은 선수들로 이기는 카드를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타로 나와 이번 대회 두 번째 홈런을 터뜨린 이승엽은 “경기 전 대타로 나갈 것이라는 언급은 받았다. 점수 차가 많아 나 출장하지 않을 줄 알았고 타격 준비를 잘 못했다. 지난 3연전에서 무리를 했다고 판단해 오늘은 가볍게 친다는 생각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홈런을 친 구중은 직구였는데 아무래도 수준이 좀 떨어지는 투수라 타격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치든 못 치든 풀스윙해봤다”며 완벽한 스윙폼을 찾아가고 있는데 만족스러워했다.

정민태 KIA행...연봉 7천만원 V10 향한 마운드 활력소 기대

KIA타이거즈가 베테랑 투수 정민태를 앞세우고 마운드 재건에 나선다.

우여곡절 끝에 정민태(사진)가 10일 배번 64번이 새겨진 KIA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었다.

입단을 공식 발표 한 뒤 정민태는 “투수 보직이 확정된 SK대신 미확정 상태의 KIA에서 활약 기회를 얻겠다”고 밝혔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민태가 4~5선발을 맡는 것이다. 조범현 감독은 젊은 투수들이 많은 KIA입장에서 노련한 경험을 가진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며 정민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10일 직접 정민태의 투구를 지켜본 조범현 감독은 “이적 문제로 10일가량 연습을 하지 못해 평가를 하기 이르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마운드 운영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V10”을 목표로 삼고 있는 KIA는 시즌 초반부터 승기를 잡겠다는 생각이지만 선발진이 불안정하다. 서재응-

리마로 이어지는 최강의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재응은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9일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던 윤석민은 고관절 통증으로 뛰지 못했다. 선발감으로 눈여겨 보고 있는 전병두, 양현종은 젊은 투수들이라 기복이 있다. 이대진은 부상전력으로 시즌을 완벽하게 소화해 낼지 장담할 수 없다.

2005년 어깨 수술 이후 6패에 그치며 부진했던 정민태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패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재기 가능성을 높여 왔다. 3차례나 다승왕에 올랐던 정민태가 노련미를 앞세운 활약을 보여준다면 KIA의 시즌은 탄탄대로가 될 전망이다.

“V10”을 노리고 있는 KIA에 우승 경험이 없는 젊은 투수들 일색이다. 2003년 현대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역 정민태의 활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5일 우리 히어로즈와의 연봉재협상 마찰로 팀을 떠난 뒤 SK와 KIA행을 놓고 갈팡질팡했던 정민태는 돈이 아닌 명예를 위해 야구를 하고 싶으며 결국 KIA를 선택했다. 연봉은 7천만원. 우리가 제시했던 8천만원보다 1천만원 적은 금액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스스로 정한 금액이다.



KIA는 서재응, 리마에 이어 정민태를 영입하면서 신구(新舊)의 균형을 맞추며 투수 명가 재건을 노리고 있다. ‘정민태 효과’가 KIA의 2008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